

# 지능형서비스로봇산업협의회 창립총회



정부가 발표한 '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' 중 하나인 '지능형서비스로봇산업 협의회'가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.

협회는 지난 8월 27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'지능형 서비스 로봇산업 협의회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'를 개최했다.

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, 본 협회와 정보통신 연구진흥원(IITA)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산·학·연 관

계자 등 총 2백 여명이 참석하여 지능형 서비스로봇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는 자리가 되었다.

'지능형 서비스 로봇산업'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산·학·연 역량의 결집과 유관기관간 상호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, 국내외 산업 및 기술정보 교류, 기술개발 방향 설정 및 표준화 추진, 수요기반 조성 및 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개최된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(주)유진로보틱스 신경철 사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.

또한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'지능형 로봇 교육 및 인력 양성', 'IT기반 지능형 서비스로봇 육성 계획', '지능형서비스로봇 산업의 미래' 등의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.

정보 통신부는 창립 총회 후 협의회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(KAIRA·Korea Advanced Intelligent Robot Association)로 정식 발족, 9월부터 로봇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.

협회에는 삼성전자·LG전자·한울로보틱스 등 로봇관련 산업체를 비롯해 통신사업자와 건설업체, 연구소 등 50여개 업체 및 단체가 회원사로 참여하며, 정보통신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2007년 까지 2600억원을 투입, 한국형 로봇의 개발 및 표준화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.

특히, 2007년까지는 전세계 시장의 10%를 차지하는 세계 3대 지능형 로봇 생산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다.

(문의 : 지능형서비스로봇산업협회 사무국 : 02-580-0561~3)

